

www.peaceone.org

# 평화누리 통일누리

2020년 3월 Vol.192

특집 26차 운영위원 총회

원폭 75년,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

회원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자료 사드 추가 배치 반대 청와대 질의서





## 1 [특집\_2020 운영위원 총회]

26차 운영위원 총회 보고 + 황윤미

2020년 사업 기조 + 오혜란

노동, 청년, 지역 등 회원들의 올해 다짐 + 박해철, 김경수, 이도구, 정서윤, 김경남



## 11 [특집\_원폭 피해 75주년]

“비핵 고배 방식을 배운다”, 부산 평통사 세 번째 일본 평화발자국 + 도라지

비키니데이를 아시나요? + 김인아

핵무기에 관련한 교황의 권고 + 지성용(번역)



## 19 [특집\_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가랑비에 옷 젖듯... 평통사도 노래처럼 젖어들게, 박봉규 회원을 만나다 + 박석분

그래도 두벽두벽 - 소성리에 다녀와서 + 권규녕

김창환 선생님과 이종필 대표님을 그리며 + 배용한, 유영재

리영희 선생님 가르침에 따라... + 유영재, 오미정



## 28 [자료]

사드 이동·추가 배치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비로의 전용 관련  
청와대 질의서



## 40 [소식]

광주/목포/보령/부천/부산/서울/인천/순천/논산계룡/대전충청

## 48 [회비와 후원금] 감사합니다.

## 회원들의 의지모아 26차 운영위원 총회 열어

황윤미 서울평통사

온 나라가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평통사 총회도 확산과 감염 우려를 고려하여 온라인 서면 약식 총회로 치르기로 하여,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총회 안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투표하는 한편, 지역별로는 오프라인이나 화상으로 총회위원 모임을 통해 총회 안전에 대한 내용을 공유, 토의, 의견 모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26차 운영위원 총회는 3월 21일(토), 문규현 상임대표 주재로 임종철 공동대표, 황윤미 서울대표, 오혜란 집행위원장, 김강연 사무처장과 상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서면 약식총회로 개최하였습니다. 첫 순서로 민중의례에 이어 문규현 상임대표의 개회선언과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문규현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2019년의 한반도 정세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규정했다고 할 수 있다”며 “정세발전의 관건은 북의 비핵화 수준에 맞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곧 안전보장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우리가 이들 문제를 당면 실천 과제로 적극 제기해 나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어깨 위에 자주와 평화통일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평화세력을 백방으로 찾고 조직”하고, “피폭 75년,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올해, 평통사를 강화하고 평화통일운동을 활성화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를 타개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의 돌파구를 우리 힘으로 반드시 열어내자”고 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온라인으로 257명, 1명의 위임으로 258명의 총회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서기로 유영재 대전충청평통사 운영위원과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를 임명하고, 본격적으로 안전 승인을 하였습니다. [안전1] 회칙개정 추진, [안전2] 2019년 평가와 결산(안) 승인, [안전3] 임원 및 중앙운영위원 출, [안전4] 자문변호사 및 지도위원 추대, [안전5] 2020년 계획과 예산(안) 승인을 제안하여 258명의 동의로 안전 승인을 하였습니다. 서기록 낭독을 마지막으로 약식 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약식 총회는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하여 총회위원들이 댓글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온라인 총회로 진행되어 회원들의 생생한 의견이나, 힘찬 결의 모으기를 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향한 평통사의 발걸음은 꾸준히, 힘차게 계속될 것입니다.

## \* 지역별 오프라인이나 화상 모임을 통한 총회위원들의 의견

- 대중적인 전개가 가능한 매체를 많이 개발해주면 좋겠다.
- 부채해결을 위하여 특별회비 납부—1차례에 한시적—를 제안한다.
- 핵무기반대 서명 우리 정부나 국회에도 보내자.
-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조직운영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온라인 교육이나 강좌(유튜브, 팟캐스트 활용) 제작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방위비분담금 반대투쟁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자.
- 부문별—작가 모임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새 평화세력 회원이 확대,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겠다.
- 핵무기 금지조약 가입 서명운동의 경우 핵무기의 반인륜성, 미국의 만행 등 감성적인 부분을 호소 하는 방식과 잘 결합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 공부 등 모임 때 꼭 주변 지인 1명씩 데리고 올 것을 제안한다.
- 젊은 회원이 적어서 젊은 회원을 많이 데리고 와야겠다.
- (평통사 공부를 할 때마다) 벅차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가족부터 회원가입을 시켜야겠다.
- 통일이야기를 듣다보면 결국 한미동맹에 이르게 되는데, (한미동맹 문제점)을 카드뉴스 활용해서 알리면 좋겠다.
- 시민평화아카데미를 개최해서 평통사 내용을 더욱 알리자.
- 남은 생애(종신 헌신) 평통사의 버팀목이 되겠다.
- 7.27 사전출씨마당을 합창출씨와 함께,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행사로 잘 치러보자.
- 평통사 내용을 쉽게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제일 중요한 과제다.
- 평화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을 만들자.
- 회원들이 한 가지 사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 핵무기금지조약을 통해 대중적 폭을 넓히고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회원을 조직하자.
- 지역특화사업—군산미군기지 관련 대응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





# 피폭 75년, 한국전쟁 70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한 길에 새 평화세력 모아내자!

오혜란 집행위원장

남북미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2020년 한반도 정세는 교착상태가 타개되어 싱가포르 성명이 이행궤도에 오를지, 아니면 남북 미간 핵 대결 격화와 전쟁위기의 재연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지의 기로에 서 있다.

교착상태의 장기화와 대결의 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 무엇보다도 현 정세를 떠받치고 있는 기동인 북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의 전쟁연습 중단 지속에 대한 남북미간의 이해가 일치한다. 북한의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을 대북 외교의 핵심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통제 불능의 악화상태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북도 대결의 격화를 바라지 않는다. 북이 노동당 전원회의(12.28~31)결정문에서 '전략무기 개발의 지속'을 천명하면서도 핵·ICBM 실험 재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이나 핵 억제력 강화를 천명하면서도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의 태도변화에 따라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기 위한 것이다. 신년기자회견에서 담대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도 남북미대결을 원치 않는다. 북이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수 있음을 재차 천명한 만큼 북의 비핵화 수준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곧 대북 적대정책 폐기(경제적 측면에서 제재 해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평화협정과 불가침, 외교적 측면에서 북미 외교관계 수립)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에 향후 정세의 향방이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과 스톡홀름 북미회담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미국 트럼프 정권은 제재 일부 해제와 영변 핵 폐기의 교환이나 안전보장(적대정책 폐기)과 비핵화의 교환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라는 트럼프의 기본적 셈법에 변화가 없다. 트럼프 정권은 싱가포르

포르 성명 이행이 대통령 재선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대선거도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황관리 차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2019년 연말까지로 정한 협상 시한을 이미 넘긴 북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와 같은 주동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북은 “북미 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 넘어갈 것”이라고 밝혀 더 이상의 양보조치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 독자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포기함으로써 북미협상을 유도할 지렛대를 상실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의지, 즉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함께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르는 관건적 문제라 할 것이다.

2017년의 핵 대결과 전쟁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한미 전쟁연습을 재개하면 한반도 정세는 순식간에 대결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싱가포르 성명이라는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북을 악의 축, 핵 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핵 대결과 전쟁위기 재연의 길로 북을 몰아세우는 일이다.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온 미국이 핵사용 문턱을 낮추는 저위력 핵탄두를 실전배치하고, 한미연합군이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작전, 선제공격무기 도입과 사드의 정식·이동·추가 배치 등 MD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은 핵전쟁 발발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맞서 북이 “전략무기 개발 지속”,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 “적대세력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키우고… 충격적 실제행동”을 예고한 것도 대결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것이다. 작년 12월 말로 정했던 협상 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북의 실제행동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2017년 북미가 벌인 극단적인 핵 대결이 재연될 경우, 이번엔 말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북미 협상이 접점을 찾아 싱가포르 성명을 이행 궤도에 올리기 위한 핵심 고리도, 한반도에서의 핵 대결과 전쟁위기의 재연을 막는 핵심 고리도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있다. 여기에 모든 실천역량과 새 평화세력을 결집시켜 내는 것이 피폭 75년,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정세의 절박한 요구다. 민족과 국가를 절멸시킬 핵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전쟁과 대결을 막고,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한반도 민중의 염원을 촛불 광장으로 모아내자. 그리하여 반드시 싱가포르 합의를 살려내고 판문점·평양선언을 이행의 궤도위에 올려놓자. 휴전 68년을 맞는 올해 13차 평화홀씨마당을 새 평화세력을 광범위하게 모아내는 평화통일운동의 대표적 행사로 성사시키자.

핵무기 사용과 위협을 불법화한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발효는 핵전쟁 발발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한반도 민중의 절박한 요구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피폭자가 있는 나라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핵우산)에 발이 묶여 핵무기 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언어도단이다. 핵무기금지조약(TPNW)가입 촉구활동을 핵무기를 투하한 미국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활동과 더욱 긴밀하게 결합시켜 전개하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재검토회의를 매개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방도, 한반도 비핵화가 핵 없는 세계 실현에서 갖는 의미를 밝히고 이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획득해 나가자. 원폭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에 힘을 쏟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자.

한미·한미일 훈련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한미동맹의 대북 선제공격 계획과 무기 도입을 저지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안정을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방개혁 2.0의 대북 공세성, 반개혁적 성격을 제거하고 남북 상호간 안전이 보장되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쟁과 분단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진보의 과제이다. 핵과 동맹에 의지한 정책은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설파할 수 있도록 평통사가 한국 평화학의 이론·실천적 토대를 쌓아나가자.

대북 공세적, 도발적 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부대와 병력, 주요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상시적 대응태세를 갖추어 나가자. 이와 함께 소성리, 평택, 제주, 군산, 부산 등의 기지가 한미동맹의 전략과 작전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지속적 조사와 대응을 지역, 중앙 사업으로 구체화하여 한미동맹을 균열 낼 수 있는 지역적, 전국적 태세를 높여나가자. 대중 포위 봉쇄를 핵심으로 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인도·태평양전략) 수행을 위한 미군 주둔과 기지 제공의 문제점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자. 방위비 분담금을 주지 말고, 기지 임대료를 받아내야 할 정당성과 근거를 대중적으로 알려나가자. 미군 주둔 때문에 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받은 사실과 결합하여 한미동맹의 부당성을 설파해 나가자. 한미동맹의 국방협력 분야를 전 방위적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정권의 동맹 전환 정책에 대응하여 한미동맹 새판짜기의 관점에서 유엔사 해체, 작전통제권 환수, 사드 철거와 한일 지소미아 폐기, 국방예산 삭감 등의 현안 투쟁을 전개하고 현상변경을 촉진시켜나가자.


정세가 요구하는 과제를 대중적으로 전개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비(반)핵군축 단체로서의 평통사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한다. 자주가 훼손될 때 민중의 고단한 삶이 외세와 기득권 세력에게 무참하게 짓밟혀왔다는 역사적 사실과 자주를 중심으로 평화통일을 일구어 온 평통사의 정체성을 결합하여 평통사 활동에 대한 신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

과학적 정세분석에 입각하여 실천의 핵심 고리를 명확히 장악하는 것은 정세와 대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전제다. 방위비, 유엔사 해체, 사드 철거, 국방예산 삭감 등 각종 현안별 구체성과 전문적 내용 없이 대중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대중을 한미동맹 해체의 주체로 세울 수는 더더욱 없다. 정책·이론적 내용을 생산하지 못하면 진보가 한미동맹 세력의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인적, 물적 역량이 제한된 속에서 평통사와 평화통일연구소의 정책·이론 역량을 강화하려면 대표, 상근자, 열성회원들이 현안을 나누어 맡아 꾸준히 내용을 축적하고 이를 통합하는 집단적 방식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국방예산 현안과 무기체계, 기지 대응 관련 지역 특화사업을 씨줄 날줄로 연결해 가며 전문성을 강화하자. 그리하여 평통사가 지역 대중 속에 확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쓰자. 중·장기적으로는 청년회원과 활동가 속에서 평통사 운동을 이끌어 나갈 이론역량을 키우는데 역량을 우선 투입하자. 청년 활동가들이 평통사 활동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세계적인 평화군축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뒷받침하자.

평통사 내용과 실천을 대중 속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SNS를 통한 평통사 내용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자. 주요사안에 대한 카드뉴스, 동영상 등 중심으로 오랫동안 말만 해왔던 유튜브 강의를 올해에는 반드시 추진하자. 핵·동맹, 평화협정, 군축 등에 대한 평통사 내용에 더해 참신하고 대중적인 기획이 덧붙여진다면 반드시 이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부단한 회원 교육과 홍보, 일상적 소통과 관리로 조직의 내실을 다지자. 꾸준한 실천과 점검으로 반드시 회원확대 목표 1,000명을 달성하자.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표와 운영위원, 열성회원들이 힘을 모아 회원관리와 일상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릴레이 상근체계를 실질적으로 가동시키자. 노동모임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농민모임을 안착시키자. 여성 모임을 꾸려내어 활성화시키자. 원폭 구술 채록, 아카데미, 평화캠프 등을 매개로 청년들을 모아내고 이들이 평통사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자.

평화홀씨마당,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한미동맹 현안과 지역 특화 사업 등 실천을 매개로 부문, 지역별로 회원확대와 새 평화세력 찾기에 전력을 다하자. 자기 틀에 갇혀 정세의 핵심 고리에 실천·조직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진보의 현실은 평통사의 실천·조직역량의 강화와 새 평화세력 찾기가 운동 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한길에 새 평화세력을 모아내자. 정세의 주요 고비에 2~3000명을 촛불광장으로 모아낼 수 있는 실천·조직적 토대를 반드시 구축해내자. 그리하여 우리 힘과 지혜로 한미동맹을 허물고 반드시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 2020 총회를 맞아 평화와 통일을 열기 위한 나의 다짐

박해철 노동모임, 철도 노동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불과 2개월 만에 각국의 입국제한과 개학연기, 다중시설 영업정지에 유례없는 증시 대폭락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나뿐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제한 조치로 경제전반이 위축되고 세계는 경제 대공황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수 없으며 수출위주의 경제인 한국은 더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에서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평화 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이 가동되었다면 마스크 대란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노동문제 등 사회개혁에서 후퇴를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실현에 여전히 미국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에 대해 노동자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결국 문재인 정부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의 길로 나가게 하려면 새 평화세력을 모아내야 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을 힘차게 열어 나가야 한다. 2020년에는 평통사 노동모임이 새 평화세력으로 모아내는데 주저 없이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고 먼저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김경수 순천평통사

올해 순천 평통사 사무국장을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만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평통사의 주인으로 저에게 주어진 작지만 소중한 책무라 생각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임하자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초보 사무국장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선 평통사 회원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아 실천해야겠습니다. 광양 회원들과 함께 미군들이 드나드는 광양항에 대한 조사와 대응 계획을 고민하고 세워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한 효

순미선 평화공원 조성 순천 콘서트를 순천 지역에서 다른 사회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 평통사에 있으면서 항상 아쉬움으로 남았던, 회지 읽기 모임을 비롯한 교육 소모임의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지식이나 낡은 사고, 허술한 이론으로는 대중에게 다가서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들과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누구보다 더 소중한 회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꼭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길에 작지만 튼튼한 밑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한 길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2020년을 기원하며 저부터 결의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도구** 논산·계룡 평통사 준비모임

내게는 가슴 떨리는 단어가 몇 개 있다. '사랑', '감사', '평화' 그리고 '통일'이 그것이다. 내가 평통사의 회원이 되어 애착(愛着)을 갖고 나름 열심(?)을 내는 것도 가슴을 뛰게 하는 '평화와 통일'이란 단어가 뇌리와 가슴에 파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토록 '평화와 통일'이란 단어에 천착(穿鑿)해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가르침)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평화다. 그것은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과 예수가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하여 왔다는 하늘의 음성과 "평화를 주노라, 평화를 빌라"는 예수의 말씀, 그리고 예수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이 '평화의 나라'라는 점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마태5:9)"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3월 10일 처음으로 '(제26차)운영위원 총회'에 온라인 서면 방식으로 참석했다. 그날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석(14명)했고, 신입회원도 가입(2명) 했다. 가슴 설레는 희망적인 날이었다. 올해는 나부터 공부도 더 하고, 회원도 확대해서 우리의 소망이자 목표인 '논산·계룡 평통사'를 정식으로 조직하여 출범하도록 할 것이다.

장준하 선생은 '전쟁은 역사의 똥'이라 했고, 시인 박노해는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라 일상(日常)'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두 분의 말은 다 성경(이사야 2:4, 미가 4:3~4)에도 있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을 이루는 통일의 그날까지, 나는 평통사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싶다. 




2020년 새해가 다가오면서, 서울 청년모임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활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학교도 자라온 배경도 제각기 다른 우리가 모여,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며 역사 공부를 하고, 때로는 발로 직접 뛰면서 함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2019년, 우리는 스무 명 가까운 한국 원폭피해자 분들의 구술채록을 진행했고, 소성리 평화촛불, 故김형률 14주기 추모제, 6·1 미 대사관 둘레 평화행진이나 7·27 평화홀씨마당 등 수많은 실천 활동에 참여했으며 자체적으로 기획한 대학교 내 캠페인으로 강제동원과 원폭투하에 대한 미·일 정부의 사죄배상 추구를 위한 서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의미 있는 활동이었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기획하고 의견을 나누며 즐겁게 임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아직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 청년모임 자체의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평통사 활동을 권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제일 주력했었던 구술채록활동에 사람이 부족해 더 많은 구술채록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자의 바쁜 일정 탓에 모임의 빈도수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원이 찾아지는 데에 저도 둔감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제가 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건, 요행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받지 못한 수많은 한국 원폭피해자 어르신들이 있고,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입니다. 아직도 소성리에는 사드 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는 최첨단 무기와 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비핵과 평화, 통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못 본 채하고 '일상'으로 받아들이는다면, 그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닐까요?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평통사 청년모임도 탈바꿈을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모임원에 힘입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학습과 실천을 병행하는 것은 물론, 활발한 소통을 통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각자의 일정도 고려하되,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 커진 규모와 함께 모든 모임원이 적


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작년의 아쉬운 점들도 보완해나가면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소성리 주민들과 원폭피해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연대하고, 핵무기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당분간은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어려운 정세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앞으로 힘을 뭉쳐 새롭게 도약하는 평통사 청년모임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몸조심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변화시킬 세상을 기대합니다. 

**김경남** 서울 청년모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생이 된 평통사 청년회원인 김경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당시 7.27평화 홀씨마당과 평화행진에 참여하게 되면서 평통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합천에서 진행되는 한국원폭피해자 구술채록 청년캠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여름캠프에 참가하면서 평통사가 추구하는 다섯 가지 가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캠프 도중에 학교 개학으로 아쉽게 끝까지 일정을 함께 하지 못한 채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캠프 이후 저는 전주 평통사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사랑방에도 참여하고 학교동아리 후배들과 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전북지역 원폭피해자 구술채록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평통사 청년활동가인 은주누나에게 “대학교 서울로 가면 평통사 활동 같이할래요.”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은주누나도 “좋아” 라고 대답했고, 마침내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2020년 평통사 청년회원이 되어 서울 청년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개강이 연기되고 오프라인 강의가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어, 서울 청년모임도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시작하게 될 구술채록 활동을 비롯한 청년모임과 활동이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청년활동 중에서도 특히 서울지역의 원폭피해자 어르신들의 구술채록을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첫 대학생활과 함께 그 외 활동들을 병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두 잘 이겨내고 평통사 청년모임에 더욱 잘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핵 고베 방식을 배운다” 부산 평통사 세 번째 일본 평화발자국

도라지 (부산평통사 운영위원, 평화발자국 해설사)

부산 평통사는 2014년부터 평화발자국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까지는 해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 시기, 한국전쟁과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시기별로 구분하여 평화를 위해 투쟁한 부산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내용으로 총 열 네 차례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시즌 2로, “부산을 비핵평화의 도시로~”라는 주제로 평화발자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전쟁의 입구가 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부산이 비핵평화의 향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지난 2월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1975년부터 핵무기 적재 함정의 입항을 거부하고 있는 고베시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번 여정은 주일미군기지의 실상과 원폭피해의 역사를 배우고자 나가사키, 사세보, 히로시마와 이와쿠니로 떠났던 지난 두 차례의 일본 평화발자국에 이은 세 번째 일본 평화발자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평화발자국 해설사들과 비핵평화 부산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는 담당자들, 그리고 핵무기 금지조약 서명운동 담당자가 참가했습니다. 통역을 도와준 대구 평통사(김천) 유은정 회원과 항공 등 교통편을 도와준 순천 평통사 김경수 운영위원이 동행했습니다.

도용회 부산시 의원 등 10명의 참가자들은 고베 평화발자국에 나서기 전, 지난 해 한일평화포



럼에서 발표된 고영대 대표의 발제문을 학습하며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행사 등 안보법제 제정과 개정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고베에서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비핵 고베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미군기지 현황과 부산 평통사의 대응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츠가와 대표 등 원수폭금지효고현협의회(효고현원수협) 간부들의 과분할 정도의 헌신적이고 성실한 안내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평화발자국에서 배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고베시

우리들의 첫 일정은 고베시청에서 공무원들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비핵 고베 방식은 유엔에서도 일본 평화헌법 9조와 함께 평화활동의 지침으로 소개될 정도로 의미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고베 방식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항만법 개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참가단은 고베시가 비핵 고베 방식을 확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비핵 고베 방식을 지켜온 시민단체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고베시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그것은 의회가 결정해야 할 일이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고베시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비핵 고베 방식의 비(일명 ‘미미상’)'을 고베항에 세우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핵 고베 방식의 내용이 적힌 미미상은 인적이 드문, 중국인 소유의 빌딩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 미일동맹 강화에 눈엣가시인 ‘비핵 고베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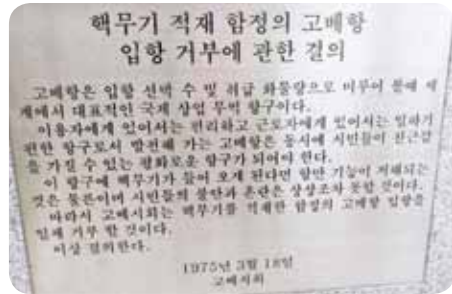
첫날 저녁 간담회에서 효고현원수협 카지모토 사무국장은 1962년부터 2017년까지 작성한 일본의 일반항에 기향한 주요 미군함정의 일람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평화운동진영이 얼마나 꾸준히, 변함없이 기지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은 정말 잘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 고베 방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고베항에는 미군함정이 제일 많이 입항했지만 비핵 고베 방식이 시작된 후부터는 단 한 척의 미군함정도 입항하지 않은 놀라운 사실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베항 입항 거부는 미일동맹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비핵 고베에 연대하는 뜻에서 일본의 군함 기향을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는 것처럼 비핵 고베 방식의 확산은 국제평화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낸 ‘비핵 고베 방식’

‘비핵 고베 방식’은 당시 비핵 3원칙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베시의회 의원들은 “비핵 3원칙을 고베에서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비핵 고베 결의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베 시민들은 해발 900m 높이의 로코(六甲)산 정상에 세워진 미군들의 레이더 기지도 철거시켰다고 합니다. 시

민들은 1985년부터 등산대회와 같은 대중적인 집회와 인간띠잇기를 꾸준히 벌이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992년에 이 레이더 기지를 반환받습니다. 고베 시민들은 지금도 매월 6일과 9일(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일) 오키나와 문제 등 주일미군기지 문제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비핵 고베 방식을 지켜온 것은 오로지 시민들의 힘입니다.




시민들이 만든 비핵 고베 결의를 담은 상  
한글로도 쓰여있다.

한편 고베시는 유람선을 타고 고베항만을 돌아보는 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단은 이 배를 타고 전범기업 가와사키와 미쓰비시가 잠수함을 건조하는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미일동맹 강화에 올라타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는 아베 정권의 폭주를 막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베의 평화운동이 “비핵 고베 방식”에서 “비핵 군축”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전쟁과 분단을 딛고 평화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한일시민연대

참가단의 마지막 일정은 고베 철도부설공사에 동원되었다가 희생된 한국강제징용노동자 상 방문과 추도식이었습니다. 고베시는 일본 시민사회가 추진한 이 일에도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가단은 노동자 상에 청수를 올리고 씻김굿 춤을 추고 각자 준비한 추도문을 낭독하고 배를 올렸습니다. 효고현원수협 회원들도 동참했습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아베 정권은 한반도 재침략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쟁과 분단에서 비롯된 일이기에 참가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습니다.

효고현원수협은 고베와 부산항을 평화의 항으로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고베-부산 연대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1946년 6월 25일 비키니 섬에서 진행된 미국의 핵실험

## 비키니데이를 아시나요?

김인아 서울평통사 청년 회원

지난 2월 27일부터 열리는 비키니대회 행사에 참가하고자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하영언니와 발언문 원고 작성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비키니 대회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하루 전날 받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행사가 취소되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행사 참여 준비를 하며 비키니 대회의 역사와 일본 반핵운동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한 것들을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일본 평화운동의 행사는 8월에 열리는 원수폭 금지대회입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를 기억하며 궁극적으로 핵 폐기를 염원하는 평화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이 대회가 시작된 것은 원폭이 투하된 지 10년 뒤인 1955년이었습니다. 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원폭 검열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1945년부터 1952년까지 일본은 미군 점령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원폭 투하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을 강하게 검열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자유롭게 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1952년에 미군이 떠나자 비로소 원폭 투하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반핵평화대회가 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반핵평화운동이 시작된 핵심 계기가 바로 비키니 섬 피폭 사건이었습니다. 1954년 3월 1일, 미국은 서태평양 마셜 제도의 비키니 섬에 수소폭탄 실험을 합니다. 비키니 섬에서의 수

폭 실험은 총 67회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소폭탄 실험에서 수폭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에 1000배(TNT 15Mt)에 달했습니다. 이 날 일본의 시즈오카현 야이즈의 참치잡이 배가 비키니섬 근처에서 조업 중이었습니다. 결국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3명은 피폭을 당했습니다. 피해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잡힌 생선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대량 발견되면서 일본 사회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멀리 원양어업까지 가서 잡아온 참치는 방사능 때문에 모두 대량 폐기 처분됩니다. 어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졌으며, 방사능 생선 오염으로 일본의 모든 시민들이 핵무기가 야기하는 끔찍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만의 비극이었던 원폭피해는 전체 일본의 국민적 비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매년 8월에는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가, 3월 1일에는 시즈오카에서 비키니 데이 대회가 개최됩니다.

반면 일본의 핵에 대한 입장은 이런 반핵 평화 운동의 흐름과는 매우 상반됩니다. 일본은 자체 핵보유를 시도했으며 적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공격을 적극 주문했습니다. 1957년 5월, 기시 총리는 ‘방어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의회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1965년 1월 사토 총리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중국과 전쟁하게 된다면, 일본은 미국이 즉각 핵무기로 보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또한 제공받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유일한 피폭 국가임을 내세우지만 핵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얼마나 반인륜적인지 경험한 국가라면 핵군축, 더 나아가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존 다우어 교수는 일본의 위선을 꼬집고, 지향점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위선 속에서 일본은, 세계 유일의 원폭 피폭국가라는 뼈아픈 수난을 바탕으로 걸치레 말이나 형식적인 제스처를 넘어 핵군축 및 궁극적인 핵폐기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도 있었던 기회를 -아마도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다. 그 자신이 핵무기의 비극을 경험하고서도 말과 결의안이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넘어서 진정으로 핵무기 통제와 궁극적인 폐기를 위한 활동을 선도할 기회를 말이다.”

일본이 이러한 위선을 극복하고, 일본 평화운동의 흐름이 인류역사상 핵무기를 투하한 미국에게 책임인정 및 사죄와 배상을 묻고, 전 세계 핵무기 폐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참고 문헌]

- ☐ ‘참치’로 불붙은 반핵평화운동 - 권혁태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 일본의 3월 1일, 비키니 데이를 아시나요? - 오마이뉴스 전은옥
- ☐ ‘핵우산’과 미국·일본의 이중성 - 존 W. 다우어 MIT 명예교수

DISCORSO DEL SANTO PADRE SULLE ARMI NUCLEARI

## 핵무기에 관련한 교황의 권고(가르침)

- 나가사키 폭심지 공원, 2019년 11월 24일(일)

번역 : 지성용 신부 천주교 인천교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인간이 서로에게 미칠 수 있는 고통과 공포를 깊이 인식하게 합니다. 나가사키 성당에서 최근에 발견된 손상된 십자가와 성모상은 원폭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희생된 가족들의 공포를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갈망 중 하나는 안전, 평화 그리고 안정입니다. 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하는 것은, 이러한 인류의 바람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가지려는 자들은 항상 인류의 안정과 평화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두려움과 불신의 정신으로 지탱된 잘못된 안전감을 통해 안정과 평화를 지키려는 왜곡된 이분법으로 특징 지워지며, 이는 결국 사람들 관계의 해악으로 끝나고 어떤 형태의 대화도 방해합니다.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은 상호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나 전멸의 위협에 기반을 둔 시도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현재와 미래의 온 인류 가족에 대한 상호 의존과 공동의 책임에 의해 형성된 미래를 향한 세계적 연대와 협력윤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 공격으로 인해 치명타를 입은 인류애와, 환경적 결과를 목격한 이 도시에서 무기 경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우리의 노력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기 경쟁은 귀중한 자원, 곧 사람들의 보다 완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 잘 사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합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세

---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해 11월,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연설문 전문을 천주교 인천교구 지성용 신부가 번역한 것이다. 천주교회가 핵무기에 대해 어떠한 유보도 없이 전면 폐기되어야 함을 강조한 이 연설은 핵금지조약(TPNW)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지성용 신부의 도움을 받아 연설문 전문을 싣는다.



상에서 낭비되는 돈과 더 파괴적인 무기의 제조, 업그레이드, 유지 및 판매를 통해 얻은 재산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세계를 수백만의 남녀가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종교 공동체 및 시민 사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그렇지 않은 국가, 군사 및 민간 부문, 국제기구 등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핵무기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현재 불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힘들지만 꾸준한 노력에서 영감을 얻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1963년, 요한 23세 교황님은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원자력 무기 금지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지상의 평화, 제112항), 정통하고 지속적인 국제 평화는 군사력의 균형에 놓일 수는 없지만 상호 신뢰에 의해서만 (지상의 평화 제113항)가능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국제 무기 통제 체계의 해체라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불신의 분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비약하고 있는 군사 기술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다국 간의 공동 정책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늘날의 국제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라는 맥락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지도자들의 긴급한 관심과 헌신을 요구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과 국가 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느님과 세상의 모든 남녀들에게 묶여 있다고 느끼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핵무기 금지 조약을 포함하여 핵무장 해제 및 비확산의 주요 국제법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것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7월, 일본 주교들은 핵무기에 대한 항의를 시작했으며, 매년 8월 일본 교회는 평화를 위한 10일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기도와 대화를 지지하는 끊임없는 노력, 대화에 대한 고집이 진정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정의와 연대의 세계를 건설하려는 노력에 대한 신뢰와 영감을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하면서 우리들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무기들이 우리를 국가 및 국제 안보에 대한 현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특히 인도주의적, 환경적 관점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러한 문제에 배치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며, 핵선언에 의해 조성된 두려움, 불신 및 적대적인 분위기가 높아지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지구의 현재 상황은 복잡하고 어려운 ‘2030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를 위해 통합적인 인간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이러한 인류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야 합니

다. 바오로 6세 교황은 1964년에 세계 군사 비용에서 부분적으로 차감된 돈으로 세계의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제기금’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Discorso ai giornalisti, Mumbai, 4 dicembre 1964; Enc. Populorum progressio, 26 marzo 1967, 51)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상호 간의 신뢰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을 요구하며,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는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관심과 도전이 되는 과제입니다. 오늘날 양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화할 수 없는 문화로 인해 무너진 세상을 외면할 순 없습니다.

나는 마음의 회개와 삶의 문화, 화해와 형제애의 승리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형제애는 공동운명에 대한 모색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일부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우리를 무관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기억의 장소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신뢰로 돌아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다 효과적인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청해야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이 나라 전체가 번영의 축복과 사회적 조화를 알아 나가기 바랍니다! 

# 가랑비에 옷 젖듯... 평통사도 노래처럼 젖어들게

만난 이 : 박봉규 부산평통사 운영위원, 평화홀씨합창단 지휘자

글쓴 이 : 박석분 조직위원



## 화장실에서 노래하고, 계명을 익히다

어릴 때부터 식구들로부터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화장실에서 노래하면 공명이 잘 되어 가수 같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자주 불렀다. 그렇지만 핸디캡이 있었다. 어릴 때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았다. 그 때문인지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늘 소리에 자신이 없었고, 대인관계도 시원치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모르는 찬송가를 배우려고 1장부터 350장까지 4부를 계명으로 불러 마스터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계명으로 따라 부르는 훈련을 했더니 곡을 만들 수 있었다. 좋은 시에 머리에 떠오르는 멜로디를 붙이고, 그것을 작곡자에게 보내 반주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곡을 만들었다. 3개월 동안 31곡을 만들어 2012년 8월 31일 '아리랑 소나타'(31곡)라는 첫 창작 가곡집을 냈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편곡한 것까지 100여곡은 만든 것 같다.

## 모든 노래를 클래식처럼 부른다

음악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노래를 좋아하다보니 찬양대 지휘도 하며 평생 음악 속에서 살아왔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합창단과 '노래하는선교단' 중창단 활동을 했다.

나의 노래를 "모든 노래의 클래식화"라고 한다. 우연한 기회에 '가곡사랑카페'에 가입했는데 카페 운영자가 되었다. 어느 날 카페 운영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작곡가 이수인 선생 덕이었다. 노래를 해보라고 해서 선생님의 반주에 맞추어 그분이 지으신 '외갓길' 노래를 했다. "이런 노래를 어떻게 아시냐며 잘한다"고 좋아하셨다. 그 일을 계기로 부산에서 '가곡사랑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그게 2011년이다. 9년이 된 지금까지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연주

회를 하고 있다. ‘부산가곡사랑모임’의 대표를 맡은 내가 하는 일 중 하나는 악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악보(동요, 가곡, 가요, 외국노래와 성가곡)가 약 1천곡 정도다. 원하는 악보를 인쇄해 준다. 음높이에 따라 조옮김도 해준다. 악보가 없으면 직접 만든다. 함께 부르는 합창을 위한 편곡도 한다. 보람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 음악은 나의 요람

나는 내향적이고 숫기가 없는데 노래를 하면서 많이 극복했다. 내게 음악이란 요람이자 삶이다. 음악 안에서 거듭났다고 할 정도다.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반려자와도 같다. 언젠가 리더십교육에 참가했는데, 연설시 취해야 할 자세가 연주할 때의 자세, 태도와 똑같았다. 그래서 나는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가곡 연주를 해라”고 농반 진반으로 말하기도 한다. 나의 발성은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한다. 끝이 안 보이는 싸움이다. 음악 외에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북산 최완택 목사님이다. 서울 미아동 신일교회에서 만났다. 최 목사님의 지도 아래 공동연구 방식으로 성경공부를 했는데,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

### 합창단 오디션에 합격한 지휘자

2017년 봄에 강문수 대표(당시 운영위원)가 제안하여 지휘를 맡게 되었다. 합창홀씨들과 처

음 만났을 때 단원들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해서 ‘외갓길’을 불렀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지휘자 오디션이었다. 우리 합창단은 노래를 잘해야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음치도 있다. 립싱커도 있다. 이후 부산평화홀씨합창단에 들어오려면, 단원은 미모 오디션을, 지휘자는 노래 오디션을 통과해야 한다는 전통(?)이 생겼다. 지휘를 맡고나서 악보 보는 법 등 기초부터 가르치고 매주 연습을 진행했다. 음치든 립싱커든 누구든 꾸준히 연습하면 극복할 수 있다. 연습이 생명이다. 이게 답이고 열쇠다. 음악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 누구든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한 곡, 두 곡 하다 보면 실력이 반드시 좋아진다. 평통사 학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 효순미션 콘서트를 위해 작곡하다

2019년 송년음악회로 진행한 효순미션 콘서트는 주제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는 곡을 찾는 게 참 힘들었다. 그래서 직접 작곡을 했다. 공연기획 논의를 했을 때 단원들은 겁을 먹었다. 이런 큰 공연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꼭 성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단합하여 열심히 연습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공연을 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올해 꼭 평화공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작은 소망들이 뭉쳐져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세와 의지다. 이 콘서트는 평통사의 요구에 합창으로 부응하는 일을 학습한 좋은 기회였다. 이제 어떤 장르든지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


기고 서로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려는 성숙한 마음도 커졌다. 어려운 파트, 잘 안 되는 부분을 서로 도우며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해준 서진화 트레이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예술적인 면에서 완성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각자 낼 수 있는 소리를 자신 있게 내고, 그 소리를 서로 들으며 맞춰가는 합창의 의미를 깨우치게 된,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 서서히 스며드는 평화통일의 가랑비가 되자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노래하는 일은 평통사 회원으로서 합창홀씨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 역할을 잘하려면 합창홀씨모임에서 ‘평화이야기’를 빠짐없이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평화홀씨 합창단이 불러야 할 곡들을 정하고, 악보를 마련하는 일도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4월에 열리는 제110회 부산가곡사랑모임 9주년 기념음악회 무대에 서려

고 하는데,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바란다. 문화의 힘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창홀씨가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 평통사의 내용을 노래에 담아 가랑비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젖어들 수 있도록... 단원이 지금 20명인데,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 인터뷰를 마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부산청년관의 관장으로 일하는 박봉규 목사는 올해 부산평통사 새내기 운영위원이다. 2018년 12월 26일, 소성리에서 회원가입을 했다. 그는 마치 스펀지처럼 평통사를 흠뻑 받아들인다. 그는 평통사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기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지만 시간과 돈을 내는 게 아깝지 않다고 한다. “쓸데없는 일에 힘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 고맙다”는 그는 손기종 사무국장과 같이 올해부터 교육위원 학습에도 참가한다. 



효순 미션 평화공원 기금 마련 콘서트를 마치고 합창단원들과 함께



## 그래도 뚜벅뚜벅 - 소성리에 다녀와서

권규녕 김제평통사 준비모임, 청년 회원

모르고 살면 불편할 게 없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저 “난 몰랐어”라고 변명하면 그만이니. 하지만 알게 되는 순간이 오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느끼고 있더라도 모르는 척 하기 마련이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사드배치 관련한 뉴스들이 한참 쏟아져 나올 때에도, 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저 남의 일인 것처럼 흘려듣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평통사의 한 청년이자 상근기획팀의 일원이 되어 사드의 거짓과 진실에 대해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지금까지의 나의 무지와 무관심을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나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하리라 생각했다. 평통사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배움은 ‘앓을 얻었으면 실천하라, 실천을 통해 제대로 알았는지 증명하라’였기 때문이다. 행동의 기회는 생각보다 일찍 얻을 수 있었다. 2020년 2월 5일, 평통사 청년들과 함께 소성리에 가게 된 것이다.

처음 가본 그곳은 내 예상과 많이 달랐다. 몇 차례 겪어 본 다른 시위현장들에서 사람들은 대개 격분하거나 엄숙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기도 했고, 사드배치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꽤나 오래 전이었기 때문에 줄어든 사람들의 관심만큼 집회도 힘이 빠져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소성리 수요집회는 아주 단단해 보였다. 내가 참여한 집회 이전의 모습을 모르기에 전보다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집회 참여자들 사이에 신뢰가 충분해 보였고, 언젠가 사드를 철회시키겠다는 의지 또한 굳건해 보였다. 막연한 분노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통한 정제된 비판이 느껴졌다. 조금 가졌던 긴장들은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 함께 가벼워졌다.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마련된 집회 장소에는 수많은 플랜카드가 걸려있었는데, 하나하나 뜻이 깊지 않은 말들이 없었으나 가장 가슴에 박히는 말은 ‘그래도 뚜벅뚜벅’이었다. ‘그래도’라는 단어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겠다는 것으로, 그 한마디에 내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절망과 분노와 좌절을 담고 있었다. 사드에 대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일까,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까, 집회의 과정이 마냥 신기하고 신나기



2020.2.5 소성리 사드철회 수요집회를 마치고 사드기지 정문앞에서 "사드 철거"를 외치는 청년회원들.

만 하던 찰나였다. ‘그래도 뚜벅뚜벅’이라는 말은 소성리의 집회가 이토록 단단하게 느껴지기까지의 눈물의 세월을 깨닫게 했다. 나아가 아직 해결된 것이 없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게 했다. 또한 그래도 뚜벅뚜벅, 빠르진 않더라도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는 그 말로, 나는 그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생각은 나만이 한 것 같지 않았다. 함께 소성리에 온 평통사의 청년들은 모두 입을 모아 “청년들이 사드뽑자”를 외쳤다. 멀고 먼 길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서, 그 어느 날 이 땅에 진짜 사드가 뽑히고 평화가 심어질 때 함께 기뻐하자고 말했다. 함께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큰 용기를 준다. 무지했던 나도 무관심했던 나도 이제 함께함으로써 뚜벅뚜벅 걸어 나갈 용기를 얻었다. 소성리에서 스스로의 부족함과 앞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으니 이제 그 용기로 내가 해야 할 것은 더 많은 배움과 더 깊은 고민과 더 망설임 없는 행동일 것이다.

그 날 들었던 수많은 “와줘서 고맙다, 반갑다”라는 말들을 기억한다. 노래 하나에 떠들썩하게 흥이 났던 모습들을 기억한다. 추운 날이었음에도 흔들리지 않던 눈동자들을 기억한다. 그것들은 하나의 장면으로 내 마음 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이다. 즐거움, 슬픔, 분노를 모두 느끼게 했던 2월의 소성리를, 나는 잊지 않고 모두의 곁에서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 김창환 선생님을 그리며

배웅한 안동평통사 대표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를 평통사 주지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경북에 전교조의 상징이었고,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안동에서 '평통사'라 하면 아직도 김창환 대표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표이기보다는 선생님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지역사회 운동은 각 부문이 다 어려웠습니다. 안동에서 운동을 하던 이들은 안동이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2003년, 그전부터 시민사회에서 부문운동을 하던 몇몇 사람이 안동 평통사 이름으로 모이기는 했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며 평화와 통일이라는 대의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다는 생각에서 회원으로 참여한 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아무래도 평통사 활동에 주력할 수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안동에서 평통사의 평화협정 실현 운동을 여러 해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지들이 모두 주저앉으려 해도 김창환 대표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때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열심히 강정마을을 드나들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에서 평통사 운동에 헌신하는 동지들에 대하여는 남다른 존경과 애정을 보였습니다. 실무 일꾼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제자 하나를 만났을 때도 오래 손을 놓지 못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평생을 흔들림 없는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임종을 앞두고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참교육과 민족통일을 위해 살다 갔다고 자신의 묘비에 새기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결같이'나, '변함없이'나, '꾸준하게'가 다 같은 말인데 선생님께서는 그만큼 그 말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말씀이고, 일생을 그렇게 살다 가셨다는 뜻이겠습니다.

김창환 대표께서 가신지 벌써 일곱 해가 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이틀 남기고, 도저히 그 꼴을 볼 수 없다는 듯이 홀연히 가셨습니다. 남은 사람으로서는 김창환 선생님께서 남기신 짐이 아직 무겁습니다. 



[편집자 주] 고 김창환 대표는 1949년 경북 의성 출생으로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하여 해임, 구속되었고, 전교조 경북지부장을 역임, 2005년 안동 평통사 대표, 2009년 평통사 공동대표를 맡았다가 암으로 투병 중, 2013년 2월 23일 영면.

## 이종필 대표님 7주기를 추모하며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고 이종필 경기남부 평통사 공동대표님이 46세 젊은 나이에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언 7년이 흘렀네요. 2008년 2월 경기남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창립식 때 그토록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던 대표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말이지요.

대표님은 1991년부터 평택 신한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해직 등 온갖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재단민주화 투쟁을 10여 년간 벌였고,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전교조 사립학교지회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대표님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 과정에서 연행되자 ‘고지의무를 위반한 연행은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경기남부 평통사를 창립할 때 공동대표로 참여한 것은 선생님의 삶의 궤적으로 볼 때 필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앞에 제기된 시대의 과제에 대하여 불퇴전의 자세로 부딪혀 오신 분이니까요. 무자비하게 대추리, 도두리를 유린하는 미국의 횡포를 외면할 수 없었을 테고 미국에 맞서 가장 앞장서 싸우는 평통사와 함께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대표님은 매년 3월 화이트데이 때마다 평통사 여성 활동가들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자상한 분이기도 했지요. 마음이 담긴 선물에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던 여성 활동가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지요. 돌아가신 직후 맞은 화이트데이에는 대표님의 따뜻한 손길이 너무 안타까워 대표님 대신 제가 사탕을 선물한 기억도 나네요.

2013년 3월 2일, 따님이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 들어가는 걸 기념하려고 가족식사를 준비하던 길에 대표님은 갑자기 쓰러지셨고, 결국 3월 9일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명박에 이은 박근혜 당선으로 의기 높은 대표님의 상심과 울분이 너무 컸던 것이 한 원인이었을까요?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죄송한 일은 대표님이 가신 뒤 경기남부 평통사가 해소되어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표님의 빈자리가 이토록 크네요. 하지만 대표님! 이생의 일일랑 내려놓으시고 부디 하늘에서 평안한 휴식을 누리세요. 이 땅의 일은 어찌되든 저희가 힘과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그리움을 마음에 담아...

평화  
통일

[편집자 주] 고 이종필 대표는 1967년 출생, 1991년부터 평택 신한중학교 교사로 재직, 10여 년간 신한재단 민주화투쟁 중 해고됐으나 끝내 비리재단 척결투쟁에서 승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에 적극 참여했고 2008년 경기남부평통사 창립 때부터 공동대표를 맡음. 2013년 3월 9일 급성 뇌출혈로 운명



## 군사,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우리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리영희 선생님 가르침에 따라...

유영재,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평화·통일연구소 명예이사장이었던 고 리영희 선생은 평통사 회원들에게 “국가 정책결정에, 특별히 군사-외교 결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시켜나가는 몇 겹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평통사 회원) 여러분의 건투야말로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군사, 외교 정책에서 한미동맹의 종속성을 문제 제기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내용들을 함께 제시하며 국민들과 함께 ‘자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당부였을 것이다. 평통사와 평화·통일연구소의 최근 몇가지 활동들을 소개한다.

### 미 국방부 홈페이지 정경두 장관 발언이 수정된 사연

2월 24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놀랄만한 사실이 발견됐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린 정경두 국방장관 발언록에 한국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자금을 댈 것(We will fund our commitments to make sure freedom of navigation.)”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중국과 이란 등을 겨냥해 진행하는 호르무즈,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비용을 한국에 계속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장관의 발언은 한국이 전면적으로 미국 편에 가담함으로써 대중 외교적, 군사적 대결을 불사하고 경제적 보복도 감수하겠다는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평통사와 평화·통일연구소는 언론사를 접촉하여 이 사안을 제보하였다.

KBS는 3월 17일 저녁 7시 뉴스에 관련 기사 - [국방장관의 뒤바뀐 발언... “美 항행자유 작전에 돈 대겠다” ?] - 를 내보냈다. KBS 취재과정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 국방부는 “(미 국방부가) 아예 없는 사실을 새로 만들어 쓴 것”이라며 부랴부랴 미 국방부와 협의하여 보도 당일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있는 정경두 장관 발언을 “항행의 자유 의지를 재확인했다(reafirm)”로 수정했다. KBS는 다음날 후속 보도- [정경두 국방 ‘없는 말’ 써냈던 美 국방부, KBS 보도 후 수정] - 를 통해 미 국방부 홈페이지가 수정된 사실을 알렸다.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가 발견한 문제가 기사화 됨으로써 미 국방부 홈페이지가 바뀐 것이다. 평통사는 이 문제가 단순한 실수이거나 헤프닝이 아니라 한미당국간 물밑 논의를 반영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평통사는 즉각 여러 단체들의 연명을 모아 <한국 국방부는



exchanged our opinion on the regional politics of  
reat collaboration, and we will fund our  
avigation based on the rule-based international

exchanged our opinion on the regional politics of  
collaboration, and we reaffirm our commitments t  
on the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미 국방부 화면 캡처 사진 왼쪽(2020.3.17 저녁 7시 50분)과 오른쪽(2020.3.17 밤 11시). 기사가 나간 당일 표현이 수정되었다.


이른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재천명하라!>는 논평을 내고 국방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논평 전문은 평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방위비분담금 사드 부지 공사비 전용 문제 발굴

이에 앞서 평화·통일연구소는 2021년 미 국방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성리 사드 부지의 탄약고 3개동과 관련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 등 건설 공사가 예정돼 있으며 한미간에 공사비를 방위비분담금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로 쓰자는 것이 논의됐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 내용은 KBS 9시 뉴스에 기사화되었다. (“사드 기지 공사비 580억 한국 부담 협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 2020. 2. 13). 그간 한국정부는 소파에 따라 부지만 제공하고 사드배치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군이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주장해왔다. 더구나 기지공여 절차나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드 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이 쓰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국방부는 관련 사안의 엄중함을 의식했는지 “현재까지 한미 간에 사드 부지 개발과 관련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공사비와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를 이뤄진 것은 없고,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 후에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할 사안” (2020. 2. 14)이라며 이를 둘러댔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도 JTBC 보도(“사드 운영비도 한국이?...기지 설계에 방위비 분담금 써”, 2020. 2. 19)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미 2018년 소성리 사드 부지 개발 설계비로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미집행 현금) 5만 달러(약 6000만 원)가 집행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내용 또한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다. 평통사와 평화·통일연구소가 발굴한 자료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한미양국이 국민들 몰래 추진하던 방위비분담금 사드 부지 불법 전용문제가 공론화되었다. 평통사는 사드 철거 투쟁을 진행하는 주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이름으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여 청와대 안보실과 시민사회수석실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평통사와 평화·통일연구소가 군사·외교 분야에서 더욱 유의미한 활동을 전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020,2,20 청와대 앞

## 사드 이동·추가 배치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비로의 전용 관련 청와대 질의서

2월 14일과 2월 20일, 사드 이동·추가 배치 반대와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비로의 사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후속으로 아래의 면담 및 질의서를 평통사에서 작성하고 사드철폐 평화회의의 논의를 거쳐 청와대 안보실에 전달하였다. 내용 개요는 아래와 같다.

주한미군이 합동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 레이더나 발사대의 이동 배치,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새로운 사드 부지 공여 요구로 이어지고, 한국 MD의 주한미군 MD 통합과 미국 MD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며, 한미일 삼각 MD 구축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이에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는 한국을 미국의 대중 전초기지로 전략시키고 한미일 MD 구축은 대중 '3불 정책'을 무력화함으로써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고 중국과의 외교, 경제 보복을 자초하는 최악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탄약고 등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불법이다. 또한 한미 국방부 간 소위 '약정'을 통한 한국의 사드 부지 공사비용 부담도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며 대국민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아울러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임시배치 상태이며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조차 중단된 상태이다. 그런데도 사드 부지 건설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국내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자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외에 천명하고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건설비로의 전용을 전면 차단하는 한편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사드를 철거해야 한다.

# 사드의 이동·추가 배치는 위헌·위법!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비용으로의 전용은 불법!

## 1. 소성리 사드의 이동 배치와 사드 추가 배치는 위헌·위법

1) 소성리 사드 발사대의 북쪽에서의 전진 배치 또는 레이더의 남쪽에서의 후진 배치와 이에 따른 새로운 부지 공여는 위헌·위법

-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JEON) 1단계는 사드의 원격 발사 실현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주한미군은 사드 레이더를 소성리 남쪽으로 이동 배치하거나 발사대를 소성리 북쪽으로 이동 배치하려고 하고 있음.
- 사드 원격 발사를 위한 소성리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의 전·후진 배치는 미 미사일방어청(MDA) 힐 청장의 2021년 미 국방예산 설명 브리핑(2020.2.10)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그는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줄 수 있다”며 “(소성리)사드 포대를 더 뒤로(남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레이더를 뒤로 이동시킬 수도 있으며, 발사대를 앞으로(북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 미 미사일방어청은 이미 사드 원격 발사 및 요격 시험평가를 2019년 8월에 진행한 바 있음 (미 국방부 운영시험평가실(DOT&E), 2019 연간보고서).
- 나아가 주한미군과 미 미사일방어청은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 2단계(사드 레이더로 PAC-III MSE 원거리 발사와 합동긴급작전요구 3단계(사드와 PAC-III 체계 통합)를 실행 도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이를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임.
- 이렇듯 주한미군과 미국 미사일방어청의 합동긴급작전요구는 단지 계획이거나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인 과제임.
- 따라서 주한미군의 합동긴급작전요구가 이행됨에 따라 주한미군은 새로운 사드 부지를 요구할 것이 예상됨.
-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자체가 한미 양국의 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배치이며, 부지 공여 또한 조약에 근거한 것이 아닌 외교부 국장의 전결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것으로, 사드 레이더 또는 발사대의 이동 배치에 따른 추가 부지 공여 역시 위헌·위법적인 것임.

【 질문 1 】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레이더와 발사대 이동 배치를 허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 】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레이더와 발사대 이동 배치에 따른 추가 부지를 공여해 줄 것인지,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 사드 포대 또는 발사대나 레이더의 추가 배치와 이에 따른 새로운 부지 공여는 위헌·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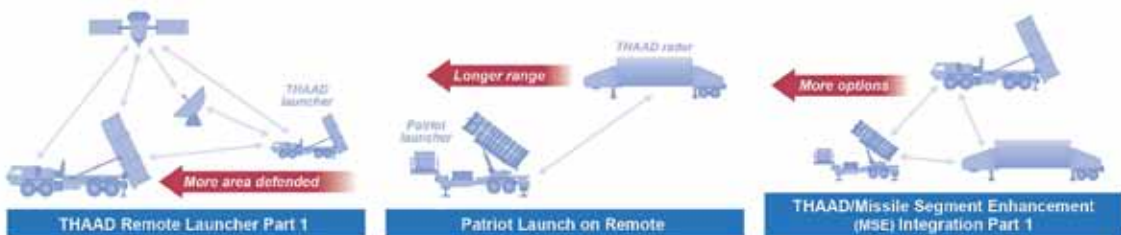
-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JEON) 1단계는 또한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예정하고 있음.
- 미 미사일방어청(MDA) 힐 청장은 2021년 미 국방예산 설명 브리핑(2020.2.10.)에서 한국에 사드 발사대의 추가 도입("you can bring in additional launchers") 의사를 밝히고 있음.
- 이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임.
- 또한 이는 이미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음. 미국은 대한민국에 당초 사드 2개 포대를 배치하려고 했다는 보도(채널 A, 2016.2.1.)나, 2017년에 주한미군이 사드 2개 포대 인력을 운용한 바 있다는 보도(중앙일보, 2018.3.26.) 등.
- 한국에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힐 청장 발언은 관련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시사했다기보다는 집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 역시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에 따라 2021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미 육군은 텍사스 포트 블리스와 포트 후드 등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포대 중 하나를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주한미군은 소성리 사드 부지 북쪽이나 남쪽에 사드 포대 또는 발사대나 레이더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이 있음. 2016년에 사드 부지 후보지로 거론됐던 평택, 칠곡, 음성, 군산, 부산 기장, 광양, 제주 등이 대상 지역이 될 수 있음.
- 이는 추가로 도입될 사드 포대 또는 발사대나 레이더 배치를 위한 주한미군의 새로운 부지 공여 요구로 이어질 것임.
- 그러나 미국이 대한민국에 추가로 사드 포대 또는 레이더나 발사대를 배치하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이며, 이를 위한 추가 부지 공여도 위헌·위법임.

【 질문 3 】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 또는 레이더나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허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4 】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 또는 레이더나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위한 추가 부지를 공여해줄 것인지,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에 따른 사드와 PAC-III 통합은 한국 MD와 주한미군 MD의 통합과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을 가속, 전면화함.

-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는 2단계에서 PAC-III MSE가 사드 레이더의 표적정보를 지원받아 원거리 발사(LOR)를 구현하는 것임.
- 또한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는 3단계에서 PAC-III MSE와 사드 포대와의 통합을 구현하는 것임. 이는 PAC-III MSE 미사일과 발사대를 사드 체계의 구성 요소로 포함시킴으로써 달성됨(GAO 보고서, 2019.6).
- 한편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합동긴급작전요구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합동긴급작전요구는 지역적 차원에서 상층방어체계(사드, 이지스 BMD)와 하층방어체계(PAC-III MSE) 간 체계 통합을 구현하는 것임(미 미사일방어청 2018 회계 연도 예산 설명 자료). 곧 주한미군의 MD 체계가 남한 방어를 위한 독자적 체계가 아니라 미 인도·태평양 MD 체계의 하위 체계라는 의미임.
- 따라서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 2, 3단계 구현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군 MD와 주한미군 MD와의 통합 과정을 가속화하고 고도화하며, 한국군 MD가 인도·태평양 MD 체계의 하부체계, 곧 미국 MD 체계로 보다 깊숙이 전면적으로 편입되어 가는 것을 의미함.
- 한국 MD의 주한미군 MD와의 통합과 미국 MD 편입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있음. 한미 양국이 연동 합의각서를 체결(2016.1) 해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탄도탄 작전통제소(TMO-Cell)를 연동시키기로 합의하고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주한미군 연동통제소(JICC) 간 연동으로 완료(연합 2017.5.17)한 것이 가장 뚜렷한 양국군 MD 통합의 징표임.
- 한국군 MD와 주한미군 MD의 통합을 위해 한국군은 항공우주작전센터(KAOC)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전술데이터링크를 Link-16으로 성능 개량해 이를 2025년까지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PAC-III, 이지스함 등에 구축할 예정임.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이 2019에 낸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JEON) 1단계는 사드 발사대의 원격발사, 2단계는 사드 레이더로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 3단계는 사드와 패트리엇(MSE)를 통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 한편 유사시 한미 간 '연합 방공 및 유도탄 방어 작전 협조본부(CAMDOCC) 운영 절차에 관한 합의서'(2012.4.12 체결, 2013.11.8 개정)에 따라 오산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센터(KAOC) 내 한미 연합 방공 및 유도탄 방어 작전 협조본부로 미 육군 제94 방공 및 유도탄 방어사령부(AAMDC) 전방지휘소가 전개되어 한미 통합 MD를 전술 지휘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담보함. 작전적 차원에서도 한국 MD와 주한미군 MD의 통합,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을 선명하게 보여 줌.
- 2012년 10월 28일, 한국 국방부는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편입)의 기준으로 미국의 사드 X-밴드 레이더 배치 등 3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음. 당시 미 국방부 캐슬린 히스 정책 담당 수석 차관보도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 기준으로 사드 레이더의 배치를 제시하였음. 성주 소성리에 미국의 사드 포대(레이더)가 배치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 조건은 충족된 셈.
- 이에 한국 MD와 주한미군 MD의 통합과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은 사실상 공식 선언만 남겨 놓고 있음. 김대중 정부가 한국 MD 구축 불가능과 미국 MD 편입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한 이래로 역대 모든 정권이 한국 MD의 구축에는 나섰지만 미국 MD 편입의 선언은 넘지 않았으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국방부와 군이 야금야금 추진해 온 한국 MD와 주한미군 MD 통합과 미국 MD 편입을 공식 천명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음.
- 한국 MD의 주한미군 MD 통합과 미국 MD 편입은 필히 한국군 PAC-III MSE 추가 도입과 한국군 SM-3 Block-I/II 이지스 요격미사일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군 PAC-III MSE와 이지스 요격체계의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와의 통합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한국군 보유의 사드 체계 도입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한국 MD의 주한미군 MD와의 통합과 미국 MD 편입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것임.
- 한국 MD의 주한미군 MD 통합과 미국 MD 편입 및 미군 주도의 통합 MD 작전 수행은 한국 MD 자산과 주한미군 MD 자산의 방어 우선순위(DAL, 방어자산목록)에 대한 한미 간 갈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미국과 나토 유럽 회원국들 간에도 MD 방어의 우선순위를 놓고 갈등이 발생했음. 특히 나토와 달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 MD 자산의 일부가, 일본 MD 자산의 일부가 인도·태평양 미군과 미국 방어에 동원되는 것처럼,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 미군, 나아가 미국 방어에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질문 5 】 한국 MD와 주한미군 MD 통합,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을 현 수준에서 중단하고 이를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전면 통합과 편입으로 나아가고 이를 공식 천명할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6 】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밝힌 한국군 사드 체계 도입과 SM-3 요격미사일 도입 의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7 】 노무현 정부가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할 당시 공군 작전통제권을 환수 대상에서 제외시킨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한국군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에 공군과 MD 작전통제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은 미국 주도 한미일 3각 동북아 MD 구축으로 이어지고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됨.

-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와 인도·태평양 합동긴급작전요구 실행으로 한국 MD와 주한미군 MD 통합과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이 가속화, 전면화 되면 한미일 3각 동북아 MD 구축이 보다 현실화되고 고도화됨.
- 일본 MD는 한국 MD보다 앞서 주일미군 MD와 전면 통합되고 미국 MD에 편입되어 있음. 미일 양국은 요코다 공군기지에 미일 공동통합작전조정센터(BJOC)를 구축해 일본 MD와 주일미군 MD를 통합 운용하고 있음.
- 일본 MD와 주일미군 MD 통합 체계는 미국 DSP 체계와 일본 자동경계관제체계(JADGE)를 연동한 정보체계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과 주일 미 해군 이지스함을 주력으로 하는 요격체제로 구성됨.
- 주한미군 TMO-Cell과 주일미군 TMO-Cell은 서로 연동되어 있으며, 각각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미 북부사령부 및 전략사령부와 연동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통합 TMO-Cell(오산 공군기지)과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통합 TMO-Cell(요코다 공군기지)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항공우주작전센터(ASOC, 하와이 하카 공군기지)의 C2BMC와 연동되어 사실상 한 체계와 다를 바 없이 운용되고 있음. 즉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항공우주작전센터를 매개로 사실상 미국 주도의 한미일 통합 MD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
- 또한 유사시 요코다 기지의 미일 공동통합작전조정센터(BJOC) 내 미일연합 방공 및 유도탄 방어 작전 협조본부(CAMDCC)로 미 육군 94 방공 및 유도탄 방어사령부 전방지휘소가 전개되어 미일 통합 MD를 전술 지휘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담보함. 유사시 미 육군 94 방공 및 유도탄 방어사령부 전방지휘소를 통해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한미일 3각 동북아 MD를 통합 작전지휘하게 되는 것임.
- 이에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합동긴급작전요구가 구현되면 한

국과 일본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직접 연동되는 것과 함께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PAC-III, 사드, 이지스 BMD 체계 간 직접 연동(P2P)이 실현됨. 이는 한미, 미일 MD 통합과 한미일 3각 동북아 MD 통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게 됨.

- 2019년 8월, 미 미사일방어청은 일본 배치 사드 레이더의 표적정보를 이용(추정)해 마셜군도 과 잘란에 배치된 발사대로 요격하는 실험을 이미 진행한 바 있음(2019 미 국방부 DOT&E 연간 보고서).
- 한편 미국이 2023년까지 개발할 사드 소프트웨어 5.0은 “확장된 지역 방어를 목표로 하며, 교전자가 종말모드의 사드 레이더를 사용하여 BMD 체계에 극초음속 위협을 추적, 보고할 수 있음(미 미사일방어청 2020 예산 설명 자료). 이는 사드 레이더를 축으로 한 한미일 3각 MD의 성격과 임무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중국 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 사례임.
- 또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는 수시로 한미일 이지스함 간 연합탐지·추적과 정보공유훈련이 인도·태평양 공군사령부의 C2BMC와의 연동 하에서 실시되고 있음. 한미일 MD 체계의 통합을 넘어 이를 유사시 한미일 통합 MD 요격작전을 구현하기 위해 평시 한미일 통합 MD 탐지·추적·정보공유훈련이 진행되는 것임.
- 평시 한미일 통합 MD 탐지·추적·정보공유훈련을 요격훈련으로 발전시키고 유사시 한미일 통합 MD 요격작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국 이지스함의 SM-3 요격미사일 장착과 요격작전에 대한 미일의 요구는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한국군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음.
- 나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후 한일 이지스함 간 직접적 연동을 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음(국방부 정례브리핑, 2017.3.14.). 이는 한일 MD 체계의 직접 연동과 통합이 모색될 가능성을 시사해 줌.
- 한편 “한미일 통합 BMD 체계는 보다 제도화된 (동북아) 지역 집단방위(동맹)의 견인차”(미 의회보고서, 2015.4)임. 한미일 MD가 구축되고 이의 수행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GSOMIA) 체결에 이어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한일 ACSA)까지 체결되면 한일 군사협력은 정보, 작전, 군수 등 전 분야로 확장되어 사실상 군사동맹 구축 단계로 발전하게 됨.

【 질문 8 】 현재 한국 MD는 미국 MD를 매개로 사실상 일본 MD와 연동되어 한미일 MD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역대 한국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한일군사동맹 구축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MD와 주한미군 MD와의 연동을 단절하고 한미일 MD 체계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는 남한을 대중 전초기지로 전략시키고 한미일 MD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 '3불 정책'을 무력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고 중국의 외교, 경제보복을 자초하며 핵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최악의 정책임.

-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와 한미일 3각 동북아 MD 구축은 미국에 중국의 ICBM에 대한 탐지·추적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이지스함 SM-3 요격미사일로 이의 요격에 나서게 함으로써 한국을 미국의 전초기지로, 한국군을 미국 방어를 위한 첨병으로 전략시키게 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당국이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그 대상에 미국 유사를 포함시키게 된다면 동북아에서는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진영 간 대결이 초래될 것이며, 한국의 안보는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됨.
-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와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MD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전면 뒤집는 것으로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보복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 게다가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미중 유사시 대중 공격에, 특히 MD 공격작전(선제공격)에 사용한다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게 되는 등 한국의 국가안보는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될 것임.
- 이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 이행과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의 실현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국가와 민족이 언제라도 핵참화의 대재앙을 맞게 될 수도 있음.

【질문 9】 이른바 대중 3불 정책을 준수할 것인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0】 '한미동맹 위기관리각서'를 개정해 위기관리 대상에 미국 유사를 포함시킬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 비용으로의 전용은 불법

### 1) 사드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전용 사실 확인

- 주한미군사령부가 작성한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종합보고서"는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사드 부지)의 기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미집행 현금) 5만 달러(약 6000만 원)를 설계비용으로 집행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 이는 사드 부지 건설 사업 계획이 이미 2018년 이전에 확정되었고 그 첫 공정으로 설계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함.

- 2021년에는 소성리 사드 부지의 탄약고 3개동과 관련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집행(미 육군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설명 자료)하기로 함. 이는 사드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이미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임.

## 2)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통한 사드 부지 건설 공사 강행은 한미소파 위반

- 한미소파 5조는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대신 미합중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할 때는 SOFA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라면서 "방위비분담금에서 사드를 위해서 무슨 비용이 들어간단든지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생각하거나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2016. 7. 11, 국회 회의록)라고 밝힌바 있음. 강경화 외교장관도 "사드와 관련해서는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원칙"(2020. 2. 18)이라고 확인함.
-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부지 설계 및 건설 공사에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반이자 우리 정부 입장에 배치됨.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 공사 비용은 미국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한미소파와 우리 정부 입장에 부합함.

## 3)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사드 부지 건설비용 부담과 전용 근거 없어

-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를 건설하는 것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소성리 사드 부지 설계비 및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임.
- 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을 보더라도 사드 부지 건설비(설계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항목은 한미가 사전에 건설사업 목록을 협의하고 집행과정에서도 한국 국방부가 관여하게 되어 있음. 설령 긴급 소요항목이라고 해도 집행년도 8월 31일까지 제기되어야 함. 그런데 사드 배치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 결정된 사항으로 2018년 군사건설항목의 긴급소요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2018년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의 사드 부지 설계비 사용과 관련해 국방부는 “설계 감리비 명목의 현금은 미측의 판단하에 사용되었”(국방부 브리핑, 2020.2.20)다고 해명함. 그런데 주한미군이 소성리 사드 부지 설계비로 쓴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은 그동안 군사건설비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현금으로, 미국이 우리 국고로 회수해야 마땅한 돈을 사드 부지 설계비로 사용한 것 자체가 우리의 재정 주권을 침해한 불법임.
-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부지 건설비를 사용할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며,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도 되지 않았고 국회비준동의도 받지 않았음. 설사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사드 부지 건설 공사 부담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규정 자체가 한미소파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불법임.

#### 4) 기관 간 ‘약정’을 앞세워 사드 부지 기반공사비용을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은 그 자체로 위헌·불법이며, 대국민 신의 배반

- 국방부 일각이나 일부 언론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2016.3.4)을 근거로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측은 전개와 운용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며 사드부지 기반시설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함.
- 그러나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드 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 등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음. 이에 이 ‘약정’의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약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우리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위헌, 위법임. 이 ‘약정’은 조약 서명권자(대통령이나 외교장관 또는 이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서명한 것이 아니며,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약정으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위법임.
- 소성리 사드 부지 내 기반시설 건설비를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은 한국 육군본부가 펴낸 『행정협정 해설서』(1988년)가 재확인해주고 있음. 이 해설서에 따르면 “한미소파 제2조에서 ‘미국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할 때의 ‘시설’이란 “현존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의미한다. 이에 “(미국이) 새로운 시설을 요구하거나 독립된 시설만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5쪽)고 밝히고 있음. 즉 기반시설이든 기반시설이 아닌 시설이든 소성리 사드부지 내 건설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하고 한국이 이를 부담할 의무도 책임도 전혀 없다는 것임.
- 이에 한국이 2018년도 사드 부지 공사 설계비를 부담한 것과 2021년도 사드 부지 건설 사업으로 탄약고 3동과 관련 시설, 상·하수도·전기·보안 시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비용

을 부담하는 것은 한미 SOFA 위반임.

- 접수국(한국)이 아닌 주둔국(미국)이 기반시설을 포함해 모든 건설비용과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국제법적 원칙이기도 함. 마-루마니아 MD 협정(2011년)이나 마-폴란드 MD 협정(2008년)을 보더라도 미국이 기지 내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통신선 설치 등)비용을 부담하며 운영비(수송, 건설, 유지 및 보수, 운송)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심지어 기지 밖의 전기·가스·수도·통신 등의 기반시설 건설과 변경에 드는 비용조차 미국이 그 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반해 한국은 사드 기지 밖 기반시설 비용과 기지 안 기반시설 비용, 군수시설 건설비, 경비 비용까지 떠안고 있는 굴욕적인 상황임.
- 정부가 그동안 줄곧 사드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해놓고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전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대국민 약속위반임. 뿐만 아니라 2018년 사드기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한미당국이 2021년도에 사드 기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협의하고도 국방부가 “현재까지 한미 간에 사드 부지 개발과 관련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2020. 2. 14, 국방부 대변인)며 발뺌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임.

【 질문 11 】 2018년부터 사드 부지 건설비용으로 전용되는 방위비분담금의 총액과 항목, 매년 집행 규모와 내역을 밝혀주시시오,

【 질문 12 】 문재인 정부는 사드 관련 약정에 관한 실제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관련 약정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3 】 방위비분담금이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에 불법 전용된 경위와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4 】 2021년 사드 부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 전용 계획 철회를 포함하여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이 소성리 사드 부지 건설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드 부지 공여 절차 및 환경영향평가 종료 전 건설공사 강행은 위법 : 임시배치를 정식배치로 불법 둔갑시켜

- 현재 소성리 사드 배치는 임시(가)배치 상태에 불과함. 이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함.



- 그러나 1, 2차로 나눠 진행되는 부지 공여는 중단 상태에 있으며, 한미당국이 소성리 사드 부지 공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미 간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합의 건의문’(Agreed Recommendation, 2017.4) 뿐임.
- 그러나 ‘합의 건의문’은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거쳤을 뿐, 조약으로서의 국내 법적 절차—정부 대표 서명,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치지 않아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님.
- 따라서 ‘합의 건의문’에 근거한 1차 사드 부지 공여(32.8만㎡)는 법적 근거가 없음. 현재 진행 중인 2차 사드 부지 공여(1차 부지 공여 면적 포함 총 70만㎡)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임.
- 또한 부지 쪼개기 공여라는 국방부의 꼼수로 소성리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시행되지도 않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되어 있음. 심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차 환경부의 ‘각종 환경기준 국내법 우선 적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병욱 환경부 차관, 2017.9.4.) 등의 조건부 승인 조치를 주한미군이 수용하지 않아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 소성리 사드 부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지도 않은 임의 시설에 불과함.
- 적법한 부지 공여 절차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전공사의 금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 위반임.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 탄약고 등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자 전횡임. 임시배치 상태에서 정부가 불법적인 건설공사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임시배치를 정식배치로 둔갑시키는 꼴.
- 부지 공여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설계나 공사 등이 변경될 수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방위비 분담금을 투입해 사드 부지 건설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국내법적 절차를 거치겠다고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자 사실상의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대국민 신의를 저버리는 것임.
- 이에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부지 건설 공사비로 전용하는 불법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사드 부지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탄약고 건설사업 계획도 철회해야 함. 나아가 사드의 이동, 추가 배치 계획 철회와 불법으로 도입한 사드를 즉각 철거해야 함.

【 질문 15 】 사드 부지에 대한 정식 공여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없었으며, 일반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부지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전면 위반하는 것으로, 이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광주평통사

###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서명운동



지난 2월 22일(토) 광주 금남로 알라딘 서점 앞에서 핵무기금지조약(TPNW)가입 촉구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첫 평화행동이었는데, 코로나19의 영향과 추운 날씨로 지나는 사람들이 적었지만, 회원들은 열심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김삼철 목사가 시무하는 '자유교회', 이병일 목사가 시무하는 '무등교회'와 박상희 회원이 근무하는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김동호, 지희준, 임미이 회원 등이 일하는 '한마음장애인자원봉사센터'에서 핵무기 금지조약 가입 촉구 서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 11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2020년 3월 10일(화) 광주평통사 11기 총회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운영위원 총회 관련 보고와 중앙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광주평통사 2월 결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신입회원들의 회원가입승인과 운영위원 약식 총회 진행에 대한 안내 및 핵무기비확산조약(NTPT) 10차 재검토회의 참가 후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광주평통사 11차 총회를 3월 29일(일)에 진행하

려 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4월 12일(일)로 2주 연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 장소 섭외 등 어려움이 있어 추후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사라져 마음 편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할 날을 기다리며, 회원 여러분 힘내세요!

| 정동석 |

## ♥ 군산평통사

### 군산 미군기지 앞 평화행동



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덮여 모든 일상과 정치적 이슈가 실종된 상황에도 3월 11일 수요일 군산미군기지 앞에는 코로나19보다 무섭게 이 땅에 기생하는 미군을 규탄하기 위해 평화의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피해를 만드는 미군바이러스를 우리땅에서 내 보내기 위해 새싹이 돋는 이 봄에 '정부는 굴종적인 태도를 버리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협정 폐기하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협박하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외쳤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힘들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대구·경북 주민들과 의료진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와중이지만 큰일 치르신 회원분들과 건강 때문에 힘드셨던 회원들에게 사랑의 마음 전합니다.

| 최소영 |

## ♥ 목포평통사

### 한빛 핵발전소 1,3,4호기 폐쇄 평화행동



박상준 공동대표와 함께 3월 11일(수) 오전 11시, 영광 한빛 핵발전소 정문 앞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9주기에 맞춰 '한빛 핵발전소 1, 3, 4호기 폐쇄 평화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가 서 있는 정문 뒤에 흉칙하게 버티고 있는 핵발전소 건물들 속에 가려진 위험요소들은 한 돌이 아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위험요소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불안하고 암담하지만 여기서 멈추거나 좌절할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한빛 핵발전소 1, 3, 4호기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서명운동



김중수 상임대표가 사무하는 산돌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서명운동을 2월 초에 진행하여 많은 교인들이 서명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배도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예배가 재개되면, 교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동석 |

## ♥ 보령평통사

### 2월 정례모임

2월 19일에 보령평통사 정례모임 겸 공부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령평통사의 총회에 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회원들과 논의한 후에 '미군이 나가면 북한이 쳐들어오나?'라는 주제로 유영재 지도위원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현재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것은 사실이므로 미군이 없어도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미군 철수 압력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 권진복 |

## ♥ 부천평통사

### 열린강연회

'핵무기 금지조약과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열린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의 필요성을 알려나가고 함께하는 것이 비핵평화단체인 평통사의 과제입니다.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촉구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겠습니다.

### 제철음식 모임



아직은 겨울인가?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인지 겨울같지가 않아요. 제철음식으로 꾸꾸미 샐러드를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철음식모임을 진행하면 항상 반가운 소식이 함께합니다. 새로운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 주정숙 |



## ♥ 부산평통사

### 12차 정기총회, “나의 자랑, 나의 사랑 부산 평통사”



2020년 2월 9일(일) 오후 5시, 감리교회관 8층 대강당에서 부산평통사 회원들은 “나의 자랑, 나의 사랑 부산평통사” 표어를 걸고 12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회원들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산지부 간부 등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문규현 상임대표는 “지역 평통사의 모범을 세우고자 애쓴 회원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면서 “부산 평통사는 여러분의 자랑이자 평통사의 자랑”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미군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인 8부두와 백운포의 기지와 무기체계, 훈련 등에 대한 감시 및 대응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폐해를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알려내는 일이 될 것”이라며 부산평통사의 지역적 과제도 짚어주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올해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을 변함없이 견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부산평통사 2020년 핵심사업

- 대표와 운영위원, 각 흙씨와 모임의 리더들의 책임감을 높인다.
- 10년 안에 청년이 주축이 되는 부산평통사를 세우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 2020년을 일상활동 참가 회원 100명, 회원 500명을 세우는 해로 만든다.
- 핵무기금지조약(TPNW) 서명운동을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이 운동 과정에서 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해나간다.
- 8부두, 백운포에 대한 대응 및 비핵평화부산조례 제정 등 부산 지역 미군기지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

### 청년모임, 회지모임을 이끌어 갈 리더학습 시작

2월부터 청년모임을 이끌어갈 회원들이 모여 심화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학습은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미일정부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의 이론적 기초를 공부하고 싶다는 청년의 제안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해방 후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정체성 찾기’(장성환) 논문을 공부했습니다. 3월 모임에서는 ‘국제인도법’, ‘헤이그법’, ‘샌프란시스코조약’등을 공부했습니다. 4월에는 핵무기 관련 조약들에 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새로 시작하는 리더학습이 4월 4일 시작됩니다. 이 학습은 회지모임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위한 학습입니다.

### 코로나19 여파로 회원모임 등 연기, 월례 평화행동은 추진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모든 회원들의 모임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다만 월례 평화행동은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 건강하세요~

### 26차 운영위원총회 부산회의 개최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온라인서면 총회에 10여 명의 부산 총회위원들이 사전 회의를 열고 안전 논의를 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더 높은 결의로 올 한 해 사업이 힘차게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 유수진 |

## ♥ 서울평통사

### 연극 <별의 노래> 관람



2월 11일(화), 서울 평통사 회원이자 연극인인 권병길님 주연의 연극 <별의 노래>를 관람했습니다. 권병길 회원은 평통사에서 이렇게 공연을 봐주려 온 것이 처음인 것 같라며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 김희현 목사와 청년 상근자들의 만남



평통사 청년 상근자들을 응원하는 뜻에서 향린교회 담임 목사이자 서울평통사 회원인 김희현 목사가 사무실 근처로 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통사 청년들, 단합 체육대회



2월 21일(금), 평통사 청년들의 단합을 위해 서울숲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서먹했던 청년들이 함께 뛰면서 결속을 다지고 지역과 모임이 달라 서로 잘 모르던 청년들도 한데 어울려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청년들이 손발을 맞추고 서로를 이해하며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의 주역으로 함께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평통사 청년모임에 함께 할 청년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 사드 추가 배치 철회 촉구 일인 시위



미대사관 앞에서 평일, 한 시간씩 하는 일인시위를 3월 6일(금)부터 16일(월)까지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일인시위는 청와대 앞에서도 동시에 진행하는데, 청와대 앞은 중앙과 인천, 부천 회원들이 맡고, 미대사관 앞을 서울 평통사가 맡았습니다. 최근 미 미사일방어청장이 한국배치 사드에 대한 3단계 업그레이드 계획 발언에 따르면, 사드를 추가, 정식, 전면 배치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안보를 더 위태롭게 만드는 사드,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 [알림] 서울 평통사 총회

- 4월 3일(금), 오후 7시, 온라인 서면 약식 총회로 진행합니다.
- 3/23(월)~4/1(수) 총회 안건 자료집 문자 배포 및 안건에 대한 의견 및 찬/반 투표

| 황윤미 |



## ♥ 인천평통사

평화사랑방 '유엔사 강화를 통해 미국이 노리는 것은?'



죽어있는 유엔사 강화를 통해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력화하고,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2월 평화사랑방을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교육자료를 인천평통사 텔레그램방에 올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걱정은 있었지만, 2월초에는 크게 확산되지는 않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코로나 사태 추이를 보고 평화사랑방 진행 관련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고 박흥순 감사 4주기를 추모하며...



2016년 2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박흥순 회원의 4주기 추도식을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2대째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던 회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옛 추억을 떠올리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모임에 함께 해주세요^^

인천평통사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회원들에 의해서 만들어 집니다. 일상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상의평화, 회지읽기, 평화발자국, 서해NLL 제대로 알기, 실천모임(준비중), 하모니카(준비중) 모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원들이 하고자 하는 모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세요^^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뜻깊은 실천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 사드공사 비용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KBS, JTBC에 방영되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이를 뒷받침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사드 전면·확장 배치 기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청와대에서 회원들의 뜻깊은 실천이 있었습니다.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김민규님, 김민서님, 이준영님, 임민재님, 최우식님



## ♥ 순천평통사

### 순천 운영위원 모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순천평통사 총회를 3월말 총회 자료집 배포 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운영위원이 사무국장을 결의했고, 신임 운영위원을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18일 26차 평통사 운영위원 총회 순천 모임에 총회위원 및 회원 15명이 참석해 2020년 평화통일운동을 위한 결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서명운동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촉구 서명운동을 운영위원 및 순천615통일합창단 단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천환경운동연합, 탈핵연대 등 환경단체에도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용지를 배포하면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간담회를 통해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대한 홍보와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평화촛불



2월 평화촛불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7시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서 변함없이 진행했습니다.

| 김용재 |

## ♥대전충청모임

### 논산계룡 준비모임



지난 2월 19일 논산계룡 회원들이 준비모임을 꾸렸습니다. 논산계룡의 "버팀목"이 되시겠다는 이도구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을, 변혜숙 선생이 사무국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셨던 문수민 목사님이 아쉽게도 라오스 선교활동으로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선교활동 잘 하시기를 빕니다. 박석분 조직위원이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지를 나누었는데 이도구 준비위원장이 90명의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김하나님, 오용석님, 김규태님이 회원 가입해 주었습니다.

### 준비모임 및 운영위원 총회 모임

준비모임을 결의하고 두 번째 정기 모임 겸 26차 평통사 운영위원 총회 논산계룡모임을 3월 17일에 진행했습니다. 이날 당일 회원가입하신 2분(심계영님, 박연정님)을 포함해 모두 14분 참석했습니다.

박석분 조직위원으로부터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공중파에서 방송되기까지 애쓰고 수고한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의 뒷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총회보고자료를 공유하고 평통사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소감으로 나누며, 논산계룡평통사 출범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부도 열심히, 회원확대는 내 가족부터, 우리 지역에 맞는 평통사 과제 찾아 꼭 이루기 등을 다짐하며, 평통사에 대한 자부심 가득 담고 이날 모임을 마쳤습니다.

논산계룡평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국 회원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논산계룡 회원들 마음 담아 첫 인사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 변혜숙 |

## ♥대전충청모임

### 홍성모임



2월 7일, 홍성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를 뚫고 아홉 분이 참가해 남북 군사력 비교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미국이 걸핏하면 미군철수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과연 미군이 나가면 북한이 쳐들어 오는 건지에 대해 실사구시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생소한 이야기지만 진지하게 참여했고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뒷풀이로 차를 마시면서 남은 이야기를 하고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여러분들이 지난 달에 나눈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촉구 서명용지에 수십 명의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 천안아산모임



2월 20, 21일 천안 아산모임은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와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해 영상과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공부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르던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고, 원폭피해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참가한

회원들은 각자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촉구 서명지를 가지고 주위에서 서명을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최만정, 김흥수 님이 회원 가입했고, 이득우 님은 45명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촉구 서명을 받아주었습니다.

### 대전 평화아카데미 3강, 4강



2020대전 평화아카데미 3강(2/6)이 "미군이 나가면 북한이 쳐들어 오나?"를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방식의 남북군사력 비교를 통해 북한 군사력 우위의 허구성을 밝히고,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의 부당성을 공유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의 중간과 후에 여러 질문과 의견 제시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실천과제에 대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4강(2/13)은 "기रो에 선 한반도 정세,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15명이 참가해서 정세 현황과 전망, 근본 문제와 해법, 과제 등에 대해 영상과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경청하고 활발하게 질의응답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어진 뒷풀이에서 뜻다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 모임을 기약했습니다. 평화아카데미를 계기로 장창섭, 김언순 님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었습니다.





(2개월) 배기봉 배주희 배 진 배춘실 변연식 변연희 서보혁 서영미 서영진  
서예원 서유미 서인규 서정래 서진희 서창호 서준진 선소단 선영일  
선우성 선윤희 선정목 송금식 송민영 송상환 선동욱 신영철 신재현 신재훈  
신필중 신해솔 심소연(2개월) 안건모 안병소 안희록 양계탁 양금순 양덕춘  
양민식 양순주 양원진 어익선 엄계희 여혜수 연선민 염윤희 오기성 오낙영  
오덕순 오미정 오지연 오대경 오혜경 우문명(2개월) 우미정 우성린(2개월)  
원우호 유나리 유영철 유정애 유종석 유현주 유형걸 유근섭 윤동현 윤수애  
윤영수 윤영일 윤영진 윤은성 윤정원 윤호상 이경록 이경애(2개월) 이경록  
이영희 이영희 이광숙 이광중(2개월) 이기모 이기영 이기자(2개월) 이동주  
이두우 이경은 이상미 이상영 이상재 이선옥 이선재 이성환 이수정 이형수  
이수철 이순혁 이승우 이아름 이애용 이영옥 이영주 이 윤 이윤영 이재필  
이정상 이정숙 이정숙 이종수 이혜진 박승렬 이호민 이화정 임동원 임보라  
임선화 임수아(2개월) 임소래 임인식 임장철 임진영 임태환 임호일 장경도  
장기춘 장남희 전기호 전영란 전은규 장광진 장길경숙 정상숙 정상현 정상인  
정소연 정수애 정수원 정연선 정영훈(2개월) 정원진 정은선 정준영 정호천  
조계성 조선금 조영희 조은하 조창현 조화순 주혜원 진유식 차정준 채근식  
채은석 최대욱 최민숙 최정원 최삼술 최석희 최성민(2개월) 최승온 최아람  
최현환 최 원 최충영 최창상 최현민 한문희 한상기 한상숙 한석희 한연옥  
한준현 한현실 한호석 허명석(2개월) 형복소 홍기정 홍영희 홍정희 홍창의(2  
김명화) 홍희덕 황덕호(2개월) 황순하 황 완 황윤미 황철우

#### 성남유인평통사(준)

김민현 김영순 김중국 김중수 김준기 김준표 김준식 김표우 노병돈 박광훈  
박종환 서덕석 성백만 신종수 원형석 이소선 이용익 이용익 정미라 정선희 정지혜  
조주현 지경필 최병철 최재철 하성주 허남해 황주연

#### 순천평통사

고성식 공훈표 김경수 김귀진 김동구 김동수 김병태 김 석 김영근 김용재  
김유택 김우택 김이준 김이철 김정호 김정호 김준희 김하성 김하성  
김현주 김효순 류보은 문명태 문영훈 문재경 문형철 박광남 박귀주 박미옥  
박민근 박병식 박성욱 박석태 박성훈 박경주 박옥희 박정훈 박종삼 박종삼  
박종일 박종택 박종택 박대기 박필수 박정진 박진택 손승상 송남숙 송남숙  
송태진 신근홍 신원식 신한우 심상욱 민병일 양승구 엄상영 오옥목 오정훈  
오승현 오하근 오하근 원국스님 유병우 유옥상 유진이 윤성근 이거라  
이귀엽 이규학 이기호 이민재 이애란 이옥자 이종술 이형민 임미정  
정복식 전성필 정길준 정성호 정영호 정영동 정현옥 정훈표 조대훈 조영식  
조종철 전호일 최미나 최병래 최상진 최상진 최희진 최혜영 허규희 허남필

#### 안동평통사

강병철 강석주 고정희 권영희 김대성 김대현 김동원 김두년 김명화 김새름  
김수동 김예숙 김유희 김재현 김정석 김경희 김지영 김지섭 김제현 김판갑  
김현택 김혁배 류준우 김현정 김민주 박무식 박용재 박재근 박종규 배용환  
손현목 신성일 여성화 오덕훈 윤미지 이병현 이성로 이우원 이 창 이천우  
이해선 임극순 장세길 전경상 조석옥 조선아 조영준 한철희 황지영

#### 익산평통사

곽은경 김대승 김양용 김영재 김유순 김중화 김창수 김현숙 김희천 노영래  
류일필 민 찬 박두식 박영진 박영진 박은경 박지현 박창진 박해영  
박동욱 박낙진 서 용 송동환 신귀백 신항우 김경희 안영목 안 준 안혜석  
오기주 유재동 유희택 이근수 이병식 이봉이(조원일) 이상문 이석근 이웅신  
이은경 이창우 이정철 이종민 이종구 이진규 이화춘 임태근 장조수 장형규  
전미영 전호정 전운수 정웅용 조가비 차미진 차은석 최미애 최미화 최미화  
최영미 최인경 최재철 최재철 최형남 홍문수 홍지훈 황영하 황의석 황인철

#### 인천평통사

강명성 강병수 강영구 고보선 고상혁 고영남 고준화 곽준경 권세영 권오승  
권성진 권혁호 김갑봉 김강연 김경민 김경선 김규식 김금옥 김기수 김도율  
김동건 김두원 김명환 김미경 김민서 김민정 김병미 김병철 김보희 김봉은  
김상기 김선경 김신미 김성규 김성만 김성식 김성태 김소희 김 수 김소희  
김승태 김시원 김영순 김용식 김우경 김옥성 김준조 김은숙 김익규 김인경  
김일중 김일태 김재용 김정원 김정자 김정하 김종갑 김종욱 김중돈 김중호  
김주숙 김중태 김중현 김중현 김지수 김지훈 김차진 김천수 김현석 김현숙  
김현주 김현호 김형욱 김형진 김혜정 김지록 김광진 김희숙 남두원 남익현  
류미애 문경조 문봉호 문선희 문영훈 문한나 박광진 박근철 박남수 박달수  
박동범 박영목 박미정 박세원 박세길 박순이 박승주 박영민 박옥희  
박용희 박원재 박유순 박준우 박정숙 박정훈 박종익 박 진 박진옥 박창훈  
박현주 박혜진 백운수 백은정 서경혜 서달원 서덕용 서영선 서재훈 소병욱  
손선재 손애자 손현철 송경명 송석우 송재철 송정로 송한석 신미경 신원수  
신윤래 신형식 신철철 오수자 오숙빈 오성진 심자섭 안용원 안태근 양은옥  
양승조 양병석 오미경 오상진 오종훈 오창근 오태호 오혁환 오혜영 오민선  
원 우 원종민 유근식 유성규 유은영 유정성 유정희 유진섭 유한경 유현철  
유현철 유현철 유현철 유영선 유영선 이경희 이기은 이기은 이대원 이대현  
이무선 이무용 이미경 이미정 이병철 이병희 이상훈 이성로 이성은 이세구  
이수진 이숙희 이순진 이숙희 이만기 이복희 이홍수 이홍우 이우성 이은순  
이은영 이은지 이은희 이재희 이재우 이정옥 이정화 이정화 이준희 이준희  
이창근 이창근 이창우 이춘식 이하선 이해민 이현구 이현숙 이현숙 이형수  
이혜영 이혜정 이혜정 인수범 임강희 임강희 임동렬 임병구 임재훈 임지주  
임희호 장경선 장광수 장귀숙 장동훈 장세주 장영애 전혁구 정영락 정명숙  
정미자 정서진 정승호 정승주 정우석 정인휘 조재호 조재호 조주남 조주남  
주용택 지성용 지현국 지현민 진재환 최리주 최병중 최복례 최서철 최순규

최 웅 최장수 최정옥 최종락 최준배 최현숙 최현호 필갑민 하경자 하대준  
한상균 한상옥 한상원 한신복 한연숙 한영순 한재수 한정수 한현진 한홍준  
허문애 홍 중 홍 학기 황병태 황선하 황인철

#### 전주평통사

강기현 강대권 고내희 고이석 고차원 곽동순 국 산 국윤용 권동용 김민준  
김성환 김여진 김영희 김은자 김재범 김경임 김주진 김진성 김충만 김태순  
김효숙 나영숙 노재화 문아경 민혜경 박기순 박수배 방용순 백기춘 백기영 백혜영  
불현근 서경희 서광호 서민이 서 승 서은숙 소춘수 송기춘 송미영 송호영  
심병호 심 훈 양경자 양동훈 양희천 엄경희 오봉숙 원영재 유영진 육숙경  
이기봉 이기환 이양백 이동주 이상빈 이송렬 이승희 이연숙 이영환 이인규  
이재호 이주희 이종희 이지는 이형구 임애림 임용진 임익인 장충철 전상호  
전소자 전형식 정기동 정기철 조경희 조미숙 조정자 조정현 전호석 최금희  
최명숙 최명호 최용기 최진규 최재훈 최정옥 한금수 허만순 황대성 황재현

#### 해남평통사

김대희 김정자 강태양 김경옥 김미희 김민하 김병욱 김상영 김수경 김양수  
김영자 김은근 김은숙 김경성 나성근 노 란 문재식 문형규 민경진 박병욱  
박석중 박승규 박영자 박근정 박정숙 박태정 배충진 백준수 백형진 봉문수  
서용석 안소희 안종기 양근재 양동욱 양하숙 엄재언 오성재 오영택 오은숙  
윤영아 유문식 윤상환 윤영식 윤예준 윤준서 이우진 이병재 이상규 이원일  
이유영 이정학 이종근 이훈재 임현식 임영희 장미로 장우량 전상규 정거설  
정경철 정진아 주단우 최신영 최영수 최은숙 한강희

#### 강원 지역 회원

김영남 김주목 민원식 이진석

#### 대전충청 지역 회원

대전충청 김기현 강대훈 강홍순 강희운 고광성 구본준 권현영 김용수 김경숙  
김기현 강도석 강동희 김미숙 김미연 고복실 김상미 김성중 김성중 김선미  
김성기 김성희 김영순 김오경 김재필 김진양 김진희 김하나 김홍업 김홍수  
나백주 남누리 노정래 류기형 문성호 문양로 민학기 박노찬 박안진 박성화  
박성화 박원준 박원준 박인택 박필규 백영기 변혜숙 서남철 서영희 서훈배  
석수진 성광진 성정희 성정희 성정희 송신근 송원준 송광은 신관호 신성원  
신주희 신현웅 신현웅 신현정 심규성 심상무 심우근 심우호 안창호 양은영  
오대현 오수진 오원근 유관형 유단배 유성호 유영희 유영재 유요철 유영민  
유정환 유정원 유종철 유진범 유희숙 윤병민 윤상렬 윤여진 윤효권 이건용  
이광현 이기훈 이도구 이득우 이만영 이병구 이세준 이수연 이숙주 이애지  
이요한 이우근 이은미 이은영 이은정 이재우 이종영 이준호 이진미 이진규  
이철수 이철호 이춘자 임동수 임병민 장명진 장민백 장창성 전양배 전윤미  
전혜련 전혜련 정명진 정성현 정성길 정은선 정창석 정형영 정희대 조동준  
조봉상 조만영 조병현 조봉현 조부활 조성미 조영주 조재현 조재형 조재형  
조주형 차인기 채승범 최만정 최영규 최영민 최희경 추교하 한기형 한상열  
함필주 허 연 홍지은 황영식 황의대

#### 무안 지역 회원

강성욱 강경태 김기주 김덕현 김병기 김선발 김양수 김영호 김옥길 김창필  
김호산 문영란 문유신 박상석 박치우 송봉섭 윤동주 이도선 이태석 임재점  
정상철 정영완 정중석 정진록 차미라 최병상 최충률 홍석주 홍용식

#### 전남 지역 회원

전남구 강복현 기숙희 김광식 김대현 김미숙 김선태 김슬기 김은희 김형재  
김현지 김형식 김희태 나옥석 노병남 노형태 류춘신 문미경 박경옥 박경희  
박광운 박동하 박응두 박종재 박진숙 박태현 서민호 서정대 송호철 오태  
형 유원상 유현순 유구현 이광수 이승현 정은정 조동근 재필순 최 성 최  
순옥 최은애 한창덕

#### 제주 지역 회원

강호진 고관일 김민수 김성규 김중환 문무병 박한백 방은미 양윤호 오명애  
오상진 오주연 정영주

#### 평택경기 지역 회원

강경남 권순환 권차량 김교원 김성용 김성환 김영호 김용표 김용환 김주성  
김택규 도영호 박성철 박혜정 서맹승 신승원 연창호 영평만 오영미 이가영  
이경수 이수용 이수정 이광진 이은우 이진희 이혜준 정인교 조영명 차치아  
류와라관 추영배 한동수 한민규 한상균 한상진 황명선

####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비] 강정구 김일화 김지영 노재필 박진석 송기춘 신정길 이정학  
이진우 임승계 임종철 정규영 조한정 최소영  
[회원 및 후원회비] 강수해 강윤미 고승은 고승은 고희림 권기석 권순걸  
권진복 권현영 김강연 김관일 김금례 김금옥 김대성 김대수 김미령 김미정  
김성태 김숙희 김숙희 김시원 김시우 김경석 김영재 김원재 김원재 김원재  
김주주 김중우 김중희 김현미 김현숙 남궁갑 류승철 문규현 민경숙 박경수  
박병욱 박복희 박성준 박성희 박성희 박영희 박은옥 박하영 박해철 변연희  
서경혜 서종환 송범수 송윤희 송준옥 신재현 신재훈 신준규 신준규 심신아  
심자섭 오미정 오종호 오혜란 윤영재 유정성 유한경 유송하 유영일 이근규  
이경옥 이기자 이기훈 이명옥 이미경 이미정 이석문 이선영 이성로 이양진  
이왕재 이우성 이은영 이재호 이정숙 이준환 이준환 이준환 이준환 이준환  
임원희 임주희 정남희 전예경 정근수 정수정 정성준 정영준 정영준 정영준  
정일태 정영란 정현희 조미향 조승현 주은영 주정숙 최병상 최윤정 하대준  
한승동 한혜영 함수연 허명석 홍기원 황윤미

\* 회비 납부 문의 : 각 지역 평통사 사무국과 중앙 사무처  
회비 명단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알려주세요

---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계좌번호 :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46 2층  
연 락 처 : 032) 671-7179 bcspark0601@hanmail.net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룡안4길 6  
연 락 처 : 010-4470-6065 박운옥

**전주평통사**

주 소 : 5495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46-8  
연 락 처 : 010-2237-7822 이재호

**광주평통사**

주 소 :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43길 광주YWCA 605호  
연 락 처 : 010-5610-5230 정동석 kj-spark@hanmail.net

**순천평통사**

연 락 처 : 010-4623-6906 김용재

**광양평통사**

연 락 처 : 010-9315-1796 정일태

**나주평통사**

연 락 처 : 010-3602-1849 이정훈

**목포평통사**

주 소 : 58684 전남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3층  
연 락 처 : 010-9260-4863 김종수

**해남평통사**

연 락 처 : 010-5612-8125 박승규

**안동평통사**

연 락 처 : 010-9867-1599 배용환

**대구평통사**

주 소 :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연 락 처 : 053) 428-0727 dgspark@hanmail.net

**부산평통사**

주 소 : 47342 부산광역시 진구 신암로 177번길 2  
연 락 처 : 051) 635-0964 bsspark@hanmail.net

**성남용인평통사(준)**

연 락 처 : 010-2462-1377 서덕석

**김제평통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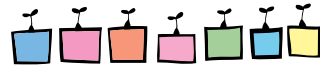
주 소 : 김제시 요촌동 서해화인빌 2동 702호  
연 락 처 : 010-9957-7478 손은하

**대전충청모임**

주 소 : 34623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7번길 52 805호  
연 락 처 : 010-3297-0568 유영재

**무안모임**

연 락 처 : 010-3645-2722 문영란



**상임대표** 문규현 **공동대표** 고영대 김병균 문홍주 박상희 변연식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감 사** 박유순 안병순 **지도위원** 강정구 김순정 김영훈 명진 박순희 배종열 조주형 정혜열

**자문번호사** 권정호 김소리 김형태 남성욱 박주민 이남진 이덕우 장경옥

**발행일** 2020년 3월 25일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 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전 화** (02)711-7292, (02)712-8443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록번호** 서울라 10482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03년 10월 9일

# 핵무기금지조약(TPNW)

# 가입 촉구 국제 서명

당신의 서명이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이란?**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2017년 7월 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협 등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불법화한 사상 최초의 국제조약입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50개국이 비준해야 합니다. 현재 (2020년1월1일) 총 34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